

출판사,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난다

독자와 호흡 맞추는 출판사 이벤트들 전문화 · 다양화해

출판사들이 문화생산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. 전통적인 텍스트 생산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. 현암사의 <현암 우주과학아카데미>와 영진닷컴의 <테크니컬라이터와 IT출판기획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> 등이 그 예인데, 출판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.

출판사들이 문화생산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. 문자 텍스트의 발굴 · 가공 · 생산 등 전통적인 기능뿐만 아니라, 출판사가 주체가 돼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. 출판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.

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해

현암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<현암 예술계본장정 학교>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. 지난해 옛 사옥을 증개축해 공간을 새롭게 꾸민 현암사의 야심찬 기획인 이 학교는 “본격적인 예술제본을 배워 혼자만의 책을 만들거나 예술적인 책을 만드는” 것을 목표로 한다. 1개월(초급) · 3개월(중급) · 6개월(고급) 과정이 개설돼 있고,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운데 선택해 수업한다. 파리 제본 장정학교를 졸업한 백순덕씨(Recto Verso 대표)가 강의를 진행한다.

현암사의 또 다른 이벤트인 <현암 우주과학아카데미>는 출판사가 지역사회의 문화 네트워크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. 이 아카데미는 “우주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천문지리를 익히되 딱딱하지 않고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교실 밖 학교”를 지향한다.

이 프로그램은 현암사 야외학습장에 설치된 뉴턴식 반사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관측하며, <풀코스 우주여행>의 저자인 김지현씨가 별자리의

탄생, 별자리 익히기, 별의 일생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. 지난 2일부터 개강했는데, 초등학생 · 중학생반, 성인반 등으로 나뉘 매주 2~3회에 걸쳐 진행한다. 개기일식, 월식 등 천문현상이 일어날 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특별강의도 마련할 예정이다.

영진닷컴은 과학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. 7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리는 <테크니컬라이터와 IT출판기획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>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필자와 기획자를 발굴 · 개발해 출판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다.

독서인구의 저변확대 꾀해

독자와 함께 호흡하려는 출판사의 이벤트도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다. ‘독서감상문공모’는 출판사 이벤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. 범우사와 삼성당이 각각 <범우독후감공모>와 <제25회 전국 초등학생 독서감상문 및 작문 대모집> 행사를 벌인다. 최근 사계절도 지난해 <전국 어린이 · 어른 독서감상문대회>를 열었고, 미래 M&B도 <여우가 주운 그림책> 출간 기념으로 독후감을 모집하고 있다.

이처럼 출판사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며 독서감상문공모를 펼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. 단기적으로는 주제도서로 선정된 책을 홍보하지만 더 나아가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켜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자는 좀더 넓은 안목에서다.

독서감상문공모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최근에는 ‘편지쓰기’ 이벤트도 활발하다. 생각의나무가 이용범씨의 <열한번째 사과나무(전2권)> 30만부 판매기념으로 <사랑의 편지쓰기>를 진행중이고, 사계절은 동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<나답게와 나고은에게 편지 보내기> 공모를 실시했다. 고려원은 <밀레니엄 사랑이야기>란 주제로 매월 시, 소설, 수필 등 장르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글들을 모집하고 있다.

독서감상문공모와 편지쓰기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이벤트라면 전시회와 저자강연회는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독자 곁으로 다가가는 행사다. 어린이책 출판사 가운데 보리가 <나무도 감>(임경빈 외 글 · 이재호 외 그림), <갯벌에 뭐가 사나 불래요>(도토리 글 · 이원우 그림) 출판기념 <원화전시회>를 열었고, 사계절도 <마당을 나온 암탉>(황선미 글 · 김환영 그림)의 삽화를 전시하는 <이야기가 있는 그림 전시회>를 개최했다. 주로 예술 · 역사서를 출판하는 학고재는 <사불산 윤필암>(정영목 외) 출판을 기념해 전시회를 열었다. 역사비평사도 유흥준씨의 <화인 열전(전2권)>을 출판하고, <조선시대 명화 개인 소장품 특별공개전>을 열었다. 특히 이 행사는 저자 유흥준씨를 초빙해 전시작품에 대한 해설을 곁들이기도 했다. 성하, 돌베개, 중앙M&B는 <2001 한국 방문의 해 기념 여행도서전>을 공동 주최해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독자들과 만난다.

책세상은 지난해부터 <열린강연회>를 열어 저자와 독자가 좀더 가까워서 호흡할 수 있는 ‘만남의 장’을 마련하고 있다. 이 행사는 <책세상 문고 · 우리시대>를 선보이며 출발했는데, 이번 달에도 <예술,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>(김용희), <우리는 왜 지금 낭만주의를 이야기하는가>(김진수)를 주제도서로 선정해 강연회를 연다.

— 박옥순 기자